

# 진안고원 막걸리 페스티벌 열린다

### 5월 31일~6월 1일 개최... 안주 구매 영수증 제시하면 지역 막걸리 무한 무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관광도시 진안군이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틀 동안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일원에서 '진안고원 막걸리 페스티벌, 낭만포차' 행사를 개최한다.

이에 진안군은 막걸리 페스티벌 먹거리 준비를 위해 16일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내 산악초타운에서 먹거리 매대(푸드카드) 운영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마이산 북부 상인회, 청년회, 귀농귀촌인 등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행사소개 및 전반적 추진 방향과 먹거리 매대(푸드카드)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막걸리 페스티벌은 지역 특산 전통주인 딸기막걸리, 홍삼막걸리를 비롯한 다양한 전통주를 시음할 수 있으며, 안주를 구매한 영수증만 제시하면 막걸리를 무료로 무한 제공한다. 지역의 꿀목상권 및 협력 업체들이 직접 개발하고 조리한 1만원 상당의 다양한 막걸리 안주들을 메뉴로 먹거리 매대(푸드카드) 거리도 운영할 예정으로 인근 도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행사 당일 관광객들을 수송하기 위해 전주 한옥마을과 진안 마이산 북부관광단지를 오가는 진안고원 힐



진안군이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틀 동안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일원에서 '진안고원 막걸리 페스티벌, 낭만포차' 행사를 개최한다.

링투어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힐링투어비스는 15시와 16시 전주에서 출발하고 20시 30분 행사종료 후 진안에서 전주로 되돌아가는 교통편으로 왕복 1만원의 교통비를 부담하면 1만원 전액을 지역상품권으로 되돌려 받아 행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행사기간 내 숙박을 인증한 관광객에게는 추첨에 따라 '홍삼스와 티켓'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도전! 막걸리 빨리 마시기', '내가 바로 막걸리 소믈리에', '짜짜! 복면가왕', '별별 라디오 소원을 말해봐' 등 참여형 이벤트와 축제에 활기와 즐거움을 더해 줄 초청공연 등을 마련해 축제를

찾는 이들에게 진안고원의 초여름 저녁,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먹거리 매대(푸드카드) 운영자는 진안군민에 한해 모집하며 모집 신청 기간은 4월 15일~25일까지이며, 이메일(jain3805@korea.kr) 또는 현장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자 발표는 4월 26일로 선정자는 야시장 선진사례 견학, 레시피 개발, 푸드카드 정비 등 행사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행사 및 푸드카드 운영자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관광과(063-430-2503)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환경 활용 농축업 미래산업 마련해야”

### 동창욱 진안군의원, 산림케어 관광특구 지정 등 발굴 제안

진안군의회(의장 김만규) 동창욱 의원은 지난 15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림케어 관광특구 지정, 안정적인 고품질 꿀벌사육 방안, 유산양 특화품목 발굴 육성”의 3가지 정책에 대한 군정 질문을 실시했다.



동창욱 의원은 첫 번째 질문에서, 올해 12월 31일 만료되는 홍삼항아리 야토피케어 특구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고, 산림케어 관광특구 추가 지정을 제안했다.

“진안군은 군립자연휴양림, 국립지리권 산림치유원,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등 다양한 산림관련 시설이 유지되어 특구지정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었다”고 말하며, “독보적인 지역 브랜드 구축과 동부산악권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림케어 관광특구 추가지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질문은 “안정적인 고품질 꿀벌사육방안”으로, 진안군의 꿀벌군집붕괴 및 폐사사태와 안정적인 사육방안을 다뤘다.

동창욱 의원은 “꿀벌육성 지원사업은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 증

대, 생태계 보존, 환경개선, 미래 식량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임야면적을 적극 활용한 꿀벌육성정책 추진을 통해 농산물 생산의 안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정책의 적극 추진과 현재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

세 번째 질문은 “유산양 특화품목 발굴육성추진”으로, 동 의원은 “진안군 산양유 생산농가에 따르면 최근 산양유 소비시장의 확대에 따라 유산양 사육과 산양유 제품 생산은 진안군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또한 “진안군의 풍부한 임야와 유유지, 경사지 발을 활용하여, 남부권에서 보기 드문 목장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농촌융복합 사업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유산양 특화품목 발굴에 대한 관련 계획과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동창욱 의원은 “진안군의 지역환경과 지리적 장점을 적극 활용한 정책과 사업 추진으로,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진안군 농축업의 미래산업 기반이 되는 고부가 가치 산업을 창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군, 재능기부 자원봉사 연주단 20일 정기공연

무주군은 오는 20일(13:00~) 무주읍 대치리 소이나루공원 공연장에서 군민들로 구성된 재능기부 자원봉사 연주단 ‘오늘같이 좋은 날’의 정기 공연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오늘같이 좋은 날’은 통기타와 색소폰, 한국무용, 플라멩코, 밴드, 보컬(부부 가수) 등 6개 동호회(26명)가 연합한 팀으로, 이날 공연에서 악기와 춤, 노래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소리샘(기타+노래), 통기타(통기타), 고동소리(색소폰), 언박싱(국악) 공연팀도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4월 6일 첫선을 보였던 ‘오늘같이 좋은 날’ 공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무주읍 소이나루공원에서 매주 토요일(13:00~16:00) 격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마을만들기 사업 사전평가 실시

장수군은 지난 15일 '2024년 장수군 마을만들기 사업 사전평가'에서 계남면 평지마을을 외 3개소가 3단계 자율개발에, 산서면 이용마을 외 3개소가 4단계 종합개발에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마을만들기사업’은 군과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인 장수지역활력센터가 함께 추진하는 완성단계(0단계~4단계) 사업으로 마을마다 특색을 살리고 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가는 사전 단계를 완료한 마을의 신청을 받아 그간 추진 성과와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작성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현장·대면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4단계 종합개발은 지난해 개최된 마을만들기사업 발전포럼 및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2020년 지방이양 이후 첫걸음을 땀다.

한편 선정된 마을은 5개월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해 9월 말에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최종 선정된 마을은 3단계 자율개발 시 각 5억 원, 4단계 종합개발 시 각 10억 원을 지원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제36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최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 조례 등 기타안건 처리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가 4월 1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6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4월 10일에 실시된 장수군 가선거구 재선거 결과 한국회의원이 당선되어 재적의원 7인이 되었다.

한국의 의원은 16일 당선인사를 통해 “군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장수군의회는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공무원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등

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또한,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선임의 건’을 의결하면서 이종섭 의원, 최한주의원, 김광훈의원, 김남수 의원, 한국회의원, 유경자의원 총 6명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장정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영농시기에 맞는 각종 시설 및 자재의 공급과 기상 및 병충해 등에 대한 사전 대비로 군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 대응전략 촉구

### 김명갑 진안군의원, “홍삼가공식품 수출 부진 방안 모색해야”

진안군의회 김명갑 의원은 15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른 대응책 및 농특산물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김명갑 의원은 올해 1월 WTO협정에 따라 8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거쳐 완전히 폐지된 수출물류비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안군의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현황과 수출 부진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응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이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의 수출관련 지원사업을 대안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수출상품 발굴과 브랜드 개발 및 홍보로 진안군 수출시장 확대 및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갑 의원은 “개인 및 업체별로 필요한 간접지원을 파악하여 제공하고, 복잡한 지원절차에 대한 안내와 교육 등 실질적인 행정적, 제도적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과 신속하고 능동적인 전략정책 시행과 지원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속적인 해외홍삼매장 판매 실적 하락과 홍삼가공품의 수출감소에 대응하지 못한 점에 큰 아쉬움을 느낀다. 지원사업의 지속성 여부까지 생각해봐야 할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회위부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 실시

무주군이 농업 현장의 안전실천 문화조성과 농업인들의 안전관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은 반딧불농업대학 수강생 1백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한밭대학교 민병찬 교수와 평안농사컨설팅 이동현 교수가 농촌진흥청에서 배포한 표준 교

안을 활용해 농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와 직업성 질환 예방법, 안전재해보험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 농작업 안전진단 조치 및 농작업 재해 상황별 응급처치 실습,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 수준 유용성 평가 등도 실시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이를 농업인 안전보험(주계약 보험료의 5%)과 농기계종합보험(산출보험료의 3% 최대 3만원) 가입 시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생활지원팀 민선희 팀장은 “무주농업 발전이 안전한 농업 현장, 건강강한 농업인들에게서 시작된다는 마인드로 농작업 재해 예방에 항상 주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